

+ 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2 번째 주일로서 성요셉 성월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가올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예시함으로써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부족했던 믿음과 희망을 다시 한 번 견고히 다지며
뜻 깊은 부활을 맞이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며
진실인 듯 삶을 왜곡시키어
우리를 허무의 그늘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거룩한 변모를 통해 당신의 참된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을 진실 되게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에 의해 건설될
참다운 공동체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순 시기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극기와 함께 단식하는 것입니다.
단식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육체적인 단식이 있고,
마음의 단식과 영혼의 단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단식은 하고 싶은 것을 참는것을 말하고
영적인 단식은 죄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지로 배고픈 배를 참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아들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생각하며 어떠한 허락된 고통도
기쁜마음으로 받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토마스

<http://home.comcast.net/~kimjiman/>